

금호타이어, 노사 타협 가능할까?

8월7일 16차 임금협상 재개 ... 정리해고에 희망퇴직까지 갈등 고조

금호타이어 노조가 시한부 전면파업을 벌인 후 하계 집단휴가를 마치고 생산현장에 복귀해 8월7일 노사협상을 재개한다.

노조는 오전 10시 광주공장에서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6차 임금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금호타이어는 임금·단체협상보다 국내공장 경쟁력 강화 방안과 정리해고 기준에 대한 교섭을 중점적으로 벌이자고 제안해 노사간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휴가에서 복귀한 8월6일부터 50% 감산 투쟁을 재개했으며, 협상 결과를 토대로 8월10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전면파업 돌입 등 투쟁방향을 조율하고 9월 집행부 선출 선거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조는 임금 7.48% 인상, 성과금 지급 등을 요구해왔지만, 금호타이어는 임금동결 등 7개 조항을 제시함으로써 거부하고 나서 근로자의 17.9%인 706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노조에 협의요청 통보서를 보내 맞서고 있다.

여기에 금호타이어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8월 셋째 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신청받겠다고 밝혀 노사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8/07>